

20 個萬의 回虫卵이 살아 남는 條件

오늘날에는 회충이 많이 없어졌지만 회충을 없애는 일은 가장 골치 아픈 일 중의 하나였다. 농촌에는 기생율 100%인 부락도 있었고 배가 아프면 회충, 구토를 하면 회충,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먼저 배속에 벌레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기생충 예방은 중요한 공중위생 활동이었다.

이런 시절에 어느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의사가 회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회충의 암놈은 사람의 창자 속에서 하루에 20 만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알중에서 창자 속에서 그대로 성충(成虫)으로 자라나는 것은 몇 마리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질문에 청중속의 누군가가 큰소리로 대답을 하였으나 옳게 맞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몇사람 다음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국민학교 선생이었다. 그러면 그 답은 무엇일까요?

답 : 한마리도 자라지 않습니다

창자속에서 생긴 회충란은 그대로 창자속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표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어 외계에서 알숙의 새끼벌레(子虫)가 자란다. 이것이 다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 체내에서 작은 창자, 혈관, 폐등을 거쳐 창자속에서 어미벌레로 자라는 것이다.

